

“오등은 3·1운동 정신 계승을 선언하노라”

〈畝等〉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광주일보가 주최한 3·1절 100주년 기념 제54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만세삼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영민 육군 제31보병사단장,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김명진 민주당 서구갑지역위원장, 최경환 민주당광화당 국회의원,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호 광주시 광산구청장,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김일수 광주농협본부장, 김석기 전남농협본부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유총, 아이들 불모로 폐원 투쟁

광주 159개 사립유치원 중
오늘 정상 개학 110곳
48개 유치원 입학 표명 유보
시교육청, 긴급돌봄체계 가동
전남은 104곳 모두 정상 개학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개학 연기 방침 유지는 물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폐원투쟁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사립유치원 일부는 개학은 연기하되 돌봄 기능은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상당수가 중앙지도부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신학기 ‘한유총 발(發) 돌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 등 시민사회, 정치권에서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신학기 혼란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15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4일 정상 개학한다’고 시교육청에 밝힌 사립유치원은 110곳이다. 개학 연기 입장을 밝힌 곳은 엘씨아이수원유치원 단 한 곳 뿐이다. 나머지 48개 유치원은 정상 개학 여부를 묻는 시교육청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입학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 유치원 명단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입학 표명 유보 유치원 규모는 이날 오전 59개였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와는 대조적으로 전남은

사립유치원 104곳 모두 정상 개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학 연기=불법”으로 규정된 교육당국은 설립허가 취소·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입학 표명을 유보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상 개학을 독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라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은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62-4283-7)로 연락하면 즉시 임시 돌봄 기관(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배정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장들이 입장을 바꿔 4일 정상 개학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 아이들과 학부모를 불모로 잡고 집단휴원이라는 파업을 택할지 모른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학부모단체·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유총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손에 손에 태극기 들고 금남로 달렸다

관련기사 7·18·19·20면

제54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규모가 대폭 확대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피를 흘린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광주일보와 (사)전남문화,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보훈청, 육군 제31보병사단이 후원한 이번 3·1절 마라톤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로 이어지는 도심을 관통해 달리며 역사의 현장에 깃든 열기를 온 몸으로 느꼈고, 봄 기운이 옅은 영산강변을 질주하며 남도의 풍광을 만끽했다. 이날 대회를 기념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박주선·천정배·김동철·최경환·권은희 국회의원, 장희국

제54회 광주일보 3·1마라톤 전국 2000여 마라토너 참가 문화전당~영산강 힘찬 레이스 풀코스 김정모·이정숙 우승

광주시교육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5·18 민주광장을 찾은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항거한 3·1운동과 그 정신을 이어받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이 5·18민주광장에서 싱그러운 봄을 느끼며, 완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54년을 이어온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개최를 축하한다”며 “오늘 참가한 마라토너들과 함께 저 역시도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전남시사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와 영산강 등지에서 3·1 전국마라톤대회를 열도록 노력해준 광주일보와 김여송 사장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100년 전 오늘 3·1운동의 정신과 광주의 5·18 정신을 깊이 새기며 완주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과 내빈들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태극문양으로 제작된 무대 위에 모여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며 일제의 폭력과 억압에 항거한 선조들의 얼과 넋을 기렸다. 이날 대회는 오전 8시 30분 5·18민주광장을 출발해 송촌보를 거쳐 상무시민공원까지 돌아오는 풀코스(42.195km)부터 시작했다. 서창교에서 돌아오는 하프코스는 8시 35분부터 진행됐다. 풀코스 우승의 영광은 남자부문에선 김정모(30·2시간 41분 59초)씨, 그리고 여자부문에선 이정숙(54·3시간0분1초74)씨가 각각 차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봄에가기 2019 딱 좋은!

여행백서

무안공항 출발 모여라!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드샵 광주총장점
062) 228-1199

중국/홍콩/러시아	일본	동남아/대만
<p>홍콩/마카오 664,900원~ 홍콩/마카오 4일, 5일</p> <p>블라디보스톡 649,000원~ 블라디보스톡 4일</p>	<p>도쿄 1,230,000원~ 동경/하코네 4일</p> <p>오사카 880,000원~ 오사카/고토나라 4일</p>	<p>보라카이 580,000원~ 보라카이 4일, 5일, 아일라</p> <p>세부 548,000원~ 세부 5일, 6일, 슬라메르조트</p> <p>다낭 766,000원~ 다낭/보이안후에 4일</p>
<p>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자강 4일, 5일</p> <p>상해/장가계 1,1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p>	<p>기타큐슈 582,000원~ 기타큐슈/후쿠오카 4일, 5일</p> <p>모이타 538,000원~ 모이타/후쿠오카 3일, 4일</p>	<p>대만 702,000원~ 대만/지우펀/야류 4일</p> <p>방콕 671,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p> <p>코타키나발루 708,000원~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시내 존북</p>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정보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증 수 있으며, 별도할증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별도해당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 [특별여행] 특별여행은 별도비용이 발생합니다. ※ [여행사] 본 여행사는 2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관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턴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 여행 자체 | 철수 권고 | 여행 금지